



# 갈보리선교회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 제45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순회전도 보고



기간: 2015년 8월2일(주일)~8월14일(금)  
대상지역: 첫째주간-전라북도지역  
둘째주간-전라남도지역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136:26)

to the God of heaven,  
His love endures forever.

2일	①7공수특전여단	9일	①김제창대교회(김제) -김광일목사시무 ②31사단보병사단사령부
3일	①구세군목양원 -장애인복지시설(군산)	10일	①동명노인전문요양원(광주)
4일	①실로암사랑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익산) ②35사단106연대1대대	11일	①목포장애인요양원 ②31사단96연대
5일	①35사단106연대1대대 해안1중대 ②드림교회(전주) -홍창민목사시무 하가교회(전주) -정성호목사시무	12일	①목포노인전문요양원 ②31사단96연대1대대
6일	①35사단105연대3대대	13일	①공생원 -아동복지시설(목포) ②31사단93연대
7일	①사랑드림요양원 -노인복지시설(완주) ②국제재활원 -장애인복지시설(완주)	14일	①35사단105연대

### \*특별전도팀 구성

- 총지휘:** 김승석목사(분당충만교회, 선교회장, 단장)
- 메시지 및 지도회원:** 김중남목사(충남과도교회, 이사), 정이남목사(이리임상교회, 이사), 김현철목사(분당충만교회, 총무), 김정은전도사(분당충만교회, 행정/위십간사), 윤정화전도사(분당충만교회, 회계/위십간사), 주정림(분당충만교회, 서기), 류춘복(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원종석(분당충만교회, 기자재간사, 엔지니어), 김아영(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김혁(분당충만교회, 차량간사), 박지연(분당충만교회), 백승범(분당충만교회), 최수진(분당충만교회)
- 단원:** 원종석(분당충만교회, 기자재간사/엔지니어)외 22명

제45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 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갈보리선교단의 공연을 보며...

7공수특전여단  
일병 조필규

1. 오프닝  
동작들이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존재감이 있고 가볍지 않아 보였다. 또한 앞에서 공연하는 이들의 표정이나 동작들이 진중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여러 개의 찬양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했기에 좋게 생각한다.
2. 메시지  
인간의 원죄론을 언급하여 알기 쉽도록 설명한 점이 좋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설명이 있었다. 신앙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두 측면을 언급했다. 추상적인 신학적 주제뿐만 아니라 비교적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었다.
3. 드라마  
음악에 맞춰 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별도의 대사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고 인상적이었다. 공연 중에 사용되는 내레이션 오디오가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교회의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소 산만해 보였던 것이 아쉽다. 연기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
4. 복음  
메시지에 확신이 있었다.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된 설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거나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인상적이었다. 선교회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설교 후에 있었던 특송(축가)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뜻깊은 말씀과  
찬양에 감사

35보병사단 106연대 1대대  
일병 오승주

갈보리선교단에서 보여준 공연을 보고 매우 보람차고,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더욱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공연과 뜻깊은 말씀과 찬양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교활동 열심히 하셔서 세계 방방곡곡 예수님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신 심신을  
달래주는

35보병사단 106연대 1대대  
일병 장명덕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던 위문공연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었던 좋은 공연이었고 매우 인상 깊었던 날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가 되어

31사단 96연대 1대대  
상병 김성하

잔잔한 감동으로 색다른 위안을 전해준 갈보리선교회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잠시나마 행복한 심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운 이 여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와 준 분들의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군 생활 중 자주 불평불만하던 저에게 성찰의 시간과 남은 군 생활에 자신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꾸준한 선교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35사단 105연대  
상병 이준영

갈보리선교회원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

31사단 93연대 본부  
대위 김경래

1. 위엄-한 분 한 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 첫 번째 메시지-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명확히 가르치는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깨끗이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 드라마-복음서 말씀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해주셔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4. 두 번째 메시지-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더욱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 성결의 영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김재창대학교회  
이영옥 집사

**하나님의 사랑** 그 외의 그 무엇도 아님을  
되새겨 보는 시간

목포장애인요양원  
류미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단원들의 한 몸짓 한 몸짓과 표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과, 은혜로 하나 되는 선교단과 장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중후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회개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 은혜가 되었고 나의 믿음과 기도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귀한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져 가며, 신앙도 믿음생활도 복잡하게 생각되는 요즘에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곳,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외의 그 무엇도 아님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성수만 겨우 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선교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천국에서 더욱 값진 보물로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목포공생원  
이유림 학생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생기가 **회복되는** 느낌

목포노인전문요양원  
이현자

갈보리선교회에서 공생원에 방문해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 합창단이 나와 찬양을 불렀다. 그리고 '복 받는 이야기' 를 해주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자식, 배우자, 대학, 등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겠다. 드라마도 보았다. 회사원, 알바생, 부잣집 사람, 공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었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었다.

중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나팔소리가 요양원에 울려 퍼질 때 저희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눌러있던 어르신들의 육체와 영혼이 말씀과 찬양으로 생기가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들이 웃음으로 차오르고, 예전에 기억해 두었던 찬양들을 따라 부르시며 하늘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셨음을 확신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찬양단에게 늘 주님의 축복이 깃들길 기도드리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메시지**

목포공생원  
염보람 지도교사

노래와 말씀, 드라마 등 여러 공연들을 보여주셔서 지루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여느 때보다 집중도가 좋았던 것 같다. 특히 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며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아 감사드리고 나 또한 잠시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임을 깨닫게 되는...**

완주국제재활원  
김성현 지도교사

오늘 보여주신 공연의 노래 한 곡 한 곡과 말씀, 손동작 하나 하나 모두 정말 은혜 받았으며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 복음성가를 잘 몰랐던 저인데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많은 곡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에 다시 한 번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31사단 93연대 본부  
중사 채준원**

햇불교회를 섬기고 있는 채준원 중사입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집회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레크레이션식의 진행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보리선교회의 공연에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부대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마음 속에 심겨져서 싹이 트기 원합니다.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어.....**

**31사단 96연대 2대대  
유다니엘**

갈보리선교회를 보면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선교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위험, 고통 등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무안까지 멀리 오셔서 저희 장병들을 간식과 연극 등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노력에 또 자극을 받았으며,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오늘 갈보리선교회가 섬김을 해주셨듯이,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저도 미국에서 선교사가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목포공생원  
김미연 학생**

갈보리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춤은 왠지 무슨 뜻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다.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준 갈보리선교회에 고맙다. 하나님의 말씀을 춤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갈보리선교회는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 춤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준 것 같다. 그리고 돈을 벌기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헛것이 되거나 실패를 한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왜 죽어야하나?” 라고 하는 질문의 답도 죄 때문이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도 짓게 된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 나도 남이 안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벌이란 말을 들으니까 많은 후회를 하게 되고 회개하였다. “성경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했다. 그래서 ‘나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방해하며 속삭이는 악한 영들을 잘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위하는  
삶인지**

**31사단 96연대 1대대  
이병 김태웅**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중이떠중이인 대부분의 교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공연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위하는 삶인지 길잡

이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입대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낮설고 긴장되는 군 생활에 많은 위안이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갈보리선교회 여러분들과 대대장님 및 간부님들께 감사합니다.

**소중했던 예배를 통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 봐야겠다**

**목포공생  
이예민**

갈보리선교단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하였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갈보리선교단이 무대에서 찬양과 율동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 정말 멋있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설교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쓰레기통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처럼 그날 그날 회개해서 꼭 용서받고 또 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렇게 갈보리선교단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성경을 더 가까이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실제 있었던 일을 드라마 연극으로 보았다.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고와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라고 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겠다. 어린이들을 위해 잘 만들어진 드라마였다.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보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중한 예배를 통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나를 되돌아 봐야겠다. 오늘 갈보리선교회에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권지현(단원)

순회전도가 끝나면 항상 드는 생각은 역시 주님이 기도한대로, 아니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장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역할을 해도 될까?' 하는 일들도 맡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맡은 역할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잠이 많은 내가 2주 내내 차량보조까지 더해져서 더 많이 피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나의 육체는 피곤하고 더위로 인해 더 크게 지칠지라도 나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고 매순간이 기뻐다. 아직 학생이라서 방학기간에 2주 내내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또한 드라마를 하면서 장면들마다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단에서도 계속 기도하였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여 자잘한 실수도 많이 하여 다른 단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내게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였고 다음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제 45차 국내순회전도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하자!"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임하였는데 결심한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 이번에도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2주 내내 전도를 하러 다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복음화율이 제일 높다는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가운데에 커다란 이단 건물이 있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시골 변두리에도 이단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개인전도에 좀 더 전력하도록 하자. 부족한 나를 단에 세우시고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결심을 현실로 이루는 주님의 종이 되자.

김지은(단원)

세상에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인간적으로도 인정받고, 외모 또한 출중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 하나도 뛰어난 것이 없는 나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가장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지! 손해 보시면서까지 사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남들은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하는 이 복음을 하루에 두 번씩 두 주 동안 매일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45차 국내 순회전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김정은(행정, 위십간사)

고등학교 때 갈보리선교회 단원이 되고 난 후 만 22년째가 되는 해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 많은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을 보니 나이가 참 많이 묻어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나이도 들고, 자녀들도 생겨나고, 많은 것이 달라져 있으나 갈보리선교회의 전도의 사역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멀리, 더 다양한 곳에 가게 되었고, 점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며 더욱 놀랍고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교회를 지켜내시고 이끌어 오신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새삼 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순간들을 생각하니 이번 여름 순회전도는 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들로 안팎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가 여기 서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윤설화(단원)

순회전도 기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정비하고 또 단련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롯이 바라보며 또 살 수 있는 신령한 삶의 현장이다. 남너노소를 무론하며 불신자, 우상숭배자, 무신론자, 어중이떠중이 신자, 뜻뜻미지근한 신자, 나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 지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기분은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내 모습에 한없이 낮아지고 또 부끄럽기도 하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집회 중 뿐만 아니라 나의 경건생활과 우리들의 모든 만남, 일기와 매 순간의 상황들에서 체험할 수 있다. 우주를 조종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의심을 하고 또 순간마다 잃어버리고, 또 부인하기도 하는 추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아주 좋은 회개의 기회가 된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에 침착해져야 하고 신중해져야 하는지, 또 언행심사에는 어떠한지, 내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파수꾼을 붙여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내 앞에 있는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큰 은총을 입었는지 내 안에서 되새길 때 하늘의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향해있음을 느낀다. 돌아가서의 나의 삶에도 그 스포트라이트가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순회전도 때 붙여주셨던 그 강력한 천사를 내 삶의 현장에 가득 붙여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그 자격을 갖춘 그릇이 되기 위해 매일 신령한 삶의 현장으로 만드는 내가 되기를 기도한다.

김혁(차량간사)

매번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순간뿐임을 보게 된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사람들의 변화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다시금 보게 된다. 이번 순회전도를 통해서도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이 귀한 사역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한 나를 택하셨는지!'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가장 적절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순간순간 여러가지 방해도 있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한 방해도 있었으나 그 방해도 잠시뿐 우리는 꼭 가야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진정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박지연(메시지간사)

제45차 국내순회전도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우리들이 한 일은 다만 잠깐의 수고와 땀 흘림, 육신의 고생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다. 다만 우리의 찬양과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혼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신 것이다. 지나고 보면 유달리 폭염이 지독해서 에어컨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던 날들의 연속이었고 비 오듯 쏟아지는 땀들이 내 눈을 파고들어서 눈을 쓰리게 하고 탈진하게 한 것들도 사실은 복음을 위한 잠깐의 수고였을 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아주 작은 희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작은 수고들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고 20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집회 내내 그들의 변화되는 표정과 그 더위 속에서도 끄떡 않고 앉아서 가만히 눈을 마주치면서 복음전파자에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조상 대대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이 떠나고 있음을 보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성하(부엔지니어)

이번 순회전도는 처음으로 직장인으로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늘 2주 내내 참석하다가 1주일만 전도를 하고 왔기에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또한 그만큼 한 집회 한 집회가 더 소중하고 집중을 잘 할 수 있었으며 바라보는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 올 여름의 폭염이 방해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장애물이 있었지만 완전한 장애물이 되지는 못했다. 집회 시간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아주 잘 알게 해주셨다. 처음에는 떠들던 군인들도 하나 둘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 감사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린다.



평상시 집회 감상문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병 박상수

오늘 갈보리선교회의 찬양예배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찬양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 주의를 끌고 특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표현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 참 좋았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일생을 연극으로 접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 군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큰 감동 과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일병 유평강

일단 청. 중장년층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훈련병들과 기간병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선교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장래희망도 선교사가 되는 것인데 갈보리선교회를 보고 큰 감동과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참 좋았습니다. 군 생활을 아직 얼마 하지 않았고 군종을 시작하지도 얼마 되지 않아 더욱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갈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힘든 훈련 중에 매주 주일이 정말 큰 은혜가 되어서 남은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훈련병들이 많을 테니 앞으로 많은 선교로 저 같은 훈련병에게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 불러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선교로 새로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군인이 많으니 힘써 주세요. 갈보리선교회에 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하나같이 딱 맞는 칼 군무에 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1사단 사령부  
일병 김민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였다. 의상까지 제대로 입어서 그런지 더 집중이 잘 되었다. 세례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드라마가 훈련병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군에서까지 신앙생활을...

61사단 178연대  
일병 최기림

안녕하십니까? 일병 최기림입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 있을 때에도 제 나름대로 찬양팀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하는 팀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찬양의 스케일도 남다르게 느껴지고 드라마를 통해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곳에 와서까지 신앙생활을 군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참 귀하고 값진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갈보리선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ews 회원소식

해외선교 소식

후원회원

우리의 동역자인 나 응 목사님께서 남대문선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시무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보리선교회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앞으로 남대문선교회와 동역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

오랜 시간 동역하고 있는 부소인 권사님께서 5월16일에 성결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섬기시는 청소년 에베에셀 비전교회에 방문하여 감사예배와 목사안수 기념패를 증정하며 함께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업

윤정화 전도사님(충만교회, 회계,워십댄싱간사)이 5월19일에 토탈케어샵을 오픈하였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십인상

10년 넘게 입고 있는 워십댄스 의상을 일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봉사 및 협력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디자인, 제작 및 봉사, 현금 및 헌납 등)

유치장전도 사역

- 서울팀** - 서울강남, 수서경찰서를 격주로 토요일에 방문하여 전도함.
- 대전팀** - 동부서,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청소년 분류감호소를 매주 토요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전도함.

캄보디아

-김동규, 김성태선교사님(프놈펜), 안선태선교사님(씨엠랩)

제16차 해외순회전도를 2016년 1월31일(주일)부터 2월1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프놈펜과 씨엠랩 지역을 순회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숙식과 이동수단, 통역, 날씨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파라과이

-안경환선교사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늘교회 개척 이야기

- 1.교회공사도 90% 정도 일추 끝났습니다.
- 2.화,수,목,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였고 출애굽기를 한 장씩 강해하여 나갈 것입니다.
- 3.목요일은 성경공부로 모입니다. 화요일모임은 계속 새로운 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참석인원 40-50명 정도)
- 4.주일예배는 아직까지 미루면서 교리와 교회론에 집중적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지며 9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와 코이노니아 없이 이루어지는 양적성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열자고 계속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기에 다들 따라오고는 있지만 피곤하고 신경 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 5.토요일 윌프리도와 친구 하비엘의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6.9월4일부터 9월11까지 페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섬긴 교회가 건축을 진행 중에 있고, 페루의 저의 동역자가 새로이 교회를 세워서 가고, 특별히 작은 아들이 한국으로 기술대(폴리텍대)에 진학을 결심하여서 서류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전도팀 집회목록 2014년 11월 ~ 2015년 8월

11/16	17사단507여단2대대	1/15	홍성정신요양원	7/12	한국보훈병원
11/23	이천한나원(노인복지시설)		32사단98연대	7/19	용인마더케어요양원(노인복지시설)
11/30	57사단221연대	1/16	서산실버필요양원	8/2	7공수특전여단
12/7	용인풍산요양원(노인복지시설)		32사단98연대1대대	8/3	군산구세군목양원(장애인복지시설)
12/14	25사단70연대1대대	1/25	하남언약사랑나눔요양원(노인복지시설)	8/4	익산실로암사랑요양병원
2/21	6군단16화확대대		성남엘림실버필(노인복지시설)	8/5	35사단106연대1대대
12/28	아가페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	2/1	성남엘림실버필(노인복지시설)	8/5	35사단106연대1대대해안중대
1/4	1사단신교대	2/8	60사단사령부		전주드림교회(전주하가교회)
1/5	파주온세그린요양원(노인복지시설)	2/22	외국인선교회	8/6	35사단105연대3대대
	25사단70연대3대대9중대	3/1	51사단보병사단사령부	8/7	완주사랑드림요양원(노인복지시설)
1/6	파주산호케어요양원(노인복지시설)	3/8	61사단178연대		완주국제재활원
	91정비대대	3/15	수도기계화보병사단	8/9	김제창대교회
1/7	해군평택2함대사령부	3/22	17사단100연대		31보병사단사령부
	51사단169연대	3/29	5사단196포병대대	8/10	광주동명노인전문요양원
1/8	평택비소요양원(노인복지시설)	4/5	6포병여단911대대	8/11	목포장애인요양원
1/9	송탄실버랜드(노인복지시설)	4/12	1포병여단898대대		31사단96연대2대대
	51사단168연대3대대	4/19	수도군단1175공병단	8/12	목포노인전문요양원
1/11	육군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4/26	용인수연당노인요양원		31사단96연대
1/12	대전성애노인요양원	5/3	28사단1포대	8/13	목포공생원(아동복지시설)
1/13	대전선우행복마을(치매센터)	5/10	하남효덕노인전문요양원		31사단93연대
	국군대전병원	5/17	이천한나원(노인복지시설)	8/14	35사단105연대
1/14	대전에베에셀요양원(노인복지시설)	5/24	하남언약사랑나눔노인요양원	8/23	죽전요양원(노인복지시설)
	대전관암장로교회	5/31	2기갑여단6전차대대	8/30	용인풍산요양원(노인복지시설)



## 사역소기

### 국내사역

####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E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어우러지며 천지창조, 예수님의 일생,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 everything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 교회찬양전도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전도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1월과 8월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팀들이 있으며 토요일 오후시간에 사역합니다.

### 해외사역

####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전도사역으로 현지교회, 학교, 교도소, 마을광장, 공연장 등에서 전도집회를 합니다.

####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 교육훈련사역

####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에 본부교회인 분당 충만교회에 모여 영성훈련과 프로그램 연습을 합니다.

####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 목장모임

매주 1회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특별훈련

1월과 8월에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 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 후원&기도회원,단원 모집안내

**1.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017-12-077384

\*국민은행:825-21-0082-437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3. 특별전도팀,유치장전도팀 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학습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http://www.calvarymission.com) /

네이버&다음에서 갈보리선교회로 검색)

**2.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 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